

# 방음벽 설치, 피탄지 보강공사

## 맹호부대 원평사격장 지역주민 초청 설명회



맹호부대가 원평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을 초청해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육군 맹호부대는 지난 16일 원평사격장에서 마을 이장 등 지역 주민 대표들과 포천시청 대표자 및 지역주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부대의 노력을 알리는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맹호부대장 주관아래 훈련장 종합발전계획 진행사항과 사격장 보강공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주민들의 건의사항 청취 및 참석한 주민들을 위한 오찬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그 동안 원평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그리고 사격 훈련장 발생하는 도비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에 맹호부대는 지난 2004년 8월 27일 사격장 지역 주민 초청행사를 개최해 당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훈련기간 중 화학대 제독차를 이용하여 기동로와 도로에 물을 살포하여 먼지와 분진 발생을

억제하고 사격 위치 및 사격시간 조정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여 왔다.

또한 사격장 주변의 불발탄과 도비탄 등의 수거활동은 물론 훈련장 주변과 인근 마을의 오물 및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4월에는 식수 사업을 실시하여 소음억제 및 먼지 비산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격장 발생하는 도비탄 억제를 위해 무려 3개월여간(4.18~6.30)의 장시간을 투자하여 피탄지 보강공사를 실시 중이다.

뿐만 아니라 근래에 들어 맹호부대는 부대의 크고 작은 행사간 마을 대표를 초청하거나 지역의 행사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대장이 참석하는 등 민·관·군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부대 인근 주민들과의 우호증진 및 교류를 활발히 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박병식(50세)씨는 평소 원평사격장 훈련에 대하여 과격한 시위를 벌이던 한 사람이었는데 "작년 간담회 이후부터 작은 것이지만 가시적인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맹호부대와 부대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민·관·군이 함께 노력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부대의 훈련여건을 보장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유리온실 신축 광릉숲 훼손이 아니다



국립수목원 신축예정인 유리온실 조감도.

국립수목원(원장 김형광)은 지난 5월 16일 환경단체로 구성된 '광릉숲 연대회'가 광릉숲을 훼손한 혐의로 국립수목원장을 고발한 건에 대하여 확인결과 관계법인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광릉숲 연대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리온실 건설 과정에서 나온 토사를 하천주변 산림 내에 임시 적재한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위반과는 관련 없는 행위이며 금년 하반기에 온실공사에 재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적재해 놓은 것이라고 하였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의 주요행위는 사전허가를 득해야 하나 이번 환경단체에서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허가대상인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유리온실 신축부지는 광릉숲의 천연림지역이 아닌 일반 전시장 지구로서 지금까지 비닐온실과 증식묘포장 등으로 활용하던 개활지로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울창한 산림을 벌채하는 등의 광릉숲의 훼손과는 무관한 지역이다. 또한 온실신축사업은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립수목원은 공사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우리 동네를 말한 다 ㉓

영북면 자일리리 이장 장동명

## 계량기 설치 통한 물부족 극복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리는 포천의 북단 영북의 가장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접경한 도계부락이다.

자일리리는 일명 서자부락이라고 불리는데, 유래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예전엔 동자일리와 서자일리로 나눠 불렸다고 한다.

자일리리는 현재 102세대 315명이 거주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마을로 연령분포별 거주인원을 살펴보면 ▶30대 미만 145명 ▶40~50대 94명 ▶60대 이상이 76명이다.

지역주민들은 농사를 40%, 축산업이 10%, 상업 및 기타 잡역이 50%를 차지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올해 처음 자일리리의 이장을 맡아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돌보고 있는 장동명(52·사진) 이장으로부터 마을의 현황과 발전상 등에 대해 들었다.

자일리리는 노인회와 부녀회가 기존에 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을의 대소사를 노인회 위주로 추진했다.

장 이장은 "이장에 취임한 후 마을일을 젊은이들이 해야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주민불편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자일리리에서 올해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중의 하나는 주민들의 협조 속에 이루어진 간이상수도에 계량기 설치작업을 꼽을 수 있다.

장 이장은 "우리마을에는 아직 광역상수도 시설이 없고 30톤까지 톤당 300원, 30~40톤까지 톤당 500원, 40톤 이상은 톤당 1천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일리리의 이러한 사례는 물부족을 극복한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일리리는 ▶마을에 식재된 30년생 이상의 은행나무와 협의회 추진하기 시작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43번 국도에 중앙분리대 설치 오는 6월까지 설치될 예정으로 이것이 설치되면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 강원도 경계까지 진출했다 유턴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국도개발연구원과 시공업체의 협조를 받아 마을에 진입할 수 있는 포켓차선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동명  
영북면 자일리리 이장

이러 "더불어 마을 도로변에 200m가량 설치된 인도도 200m가량 더 연장하기로 시공업체측과 협의회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장 이장은 "우리마을에는 아직 광역상수도 시설이 없고 30톤까지 톤당 300원, 30~40톤까지 톤당 500원, 40톤 이상은 톤당 1천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일리리의 이러한 사례는 물부족을 극복한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일리리는 ▶마을에 식재된 30년생 이상의 은행나무와 협의회 추진하기 시작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43번 국도에 중앙분리대 설치 오는 6월까지 설치될 예정으로 이것이 설치되면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 강원도 경계까지 진출했다 유턴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국도개발연구원과 시공업체의 협조를 받아 마을에 진입할 수 있는 포켓차선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이장은 "1사 1촌 사업 신청과 가로등설치, 기초생활시설 확충을 위한 하수도(하수)의 총체적 정비 등 추진할 사업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이장은 "1사 1촌 사업 신청과 가로등설치, 기초생활시설 확충을 위한 하수도(하수)의 총체적 정비 등 추진할 사업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이장은 "1사 1촌 사업 신청과 가로등설치, 기초생활시설 확충을 위한 하수도(하수)의 총체적 정비 등 추진할 사업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이장은 "1사 1촌 사업 신청과 가로등설치, 기초생활시설 확충을 위한 하수도(하수)의 총체적 정비 등 추진할 사업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이장은 "1사 1촌 사업 신청과 가로등설치, 기초생활시설 확충을 위한 하수도(하수)의 총체적 정비 등 추진할 사업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이장은 "1사 1촌 사업 신청과 가로등설치, 기초생활시설 확충을 위한 하수도(하수)의 총체적 정비 등 추진할 사업이 많다"고 덧붙였다.

### 인터뷰 읍·면·동장 ㉑ 포천동 연제순 동장

# 주민자치센터 자치역량 강화

## 내골목지킴이 운동으로 좋은마을 가꾸기



연제순  
포천동 동장

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소홀음 등 신도시로 주민들이 이주하고 있어 점차 인구가 감소하고

포천의 중심도시로서 포천시청 등 행정관서가 위치해 있으며, 주민대부분이 도시적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포천동. 포천동은 지리적으로 포천시의 중심에 있으며 신북면, 군내면, 선단동이 둘러싸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기도 하다. 포천동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만9천300명(포천시의 13%), 6천873세대(농가 916세대, 비농가 5천957세대), 면적 11.35km(포천시의 1.4%·농경지 3.15km, 임야 6.2km, 기타 2.0km) 행정구역 16개동(법정동 2개동), 124개반 공무원수 15명(일반직 11명, 일용직 4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 1천790명 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2천856명), 고등학교 1개교(1천65명) 차량 6천706대 중 승용차 4천506대(1.53가구당 1대)이다.

1974년 공무원에 입문. 부녀아동계, 민간협력계를 거쳐 군내면 前 김정에 면장에 이어 포천에 여성 2호 동장에 취임, 지난해 1월 부임한 연제순(49·사진) 동장으로 부터 포천동의 현황 및 주요사업에 대해

포천동은 2005년도에 주요사업으로 주민자치역량강화와 복지네트워크 구축, 민원

서비스 질 향상, 맑고 쾌적한 도심조성에 역점을 두고 동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연 동장은 "앞에서 언급한 물해의 사업 중 가장 역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역량강화"라며 "이는 지역축제를 통한 역량강화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연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강화한 지역축제 활성화에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나아가야 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자치센터의 단순한 문화 콘텐츠택공을 뛰어넘어 기획능력까지 육성하게 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3월초 결단식을 가진 좋은마을 가꾸기가 눈에 띈다.

연 동장은 "이 사업은 역시 주민자치센터가 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중 실시될 예정이며, 지난 3월 지킴이 127명

을 통장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시행 초기인 만큼 통사무소 직원들의 동참 끝에 지금 효과가 좋아 깨끗한 포천동 골목이 만들어 지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동이 역점을 두는 사업중의 하나는 복지네트워크 구축이다. 이 사업은 사랑의 쿠폰사업 사랑의 열매 리플릿 사업 우리동네 정보센터구축으로 주민자치센터 지역복지부가 주관해 시행하고 있다.

연 동장은 "복지 네트워크 구축은 크게 우유나 피자, 고기, 빵, 참기름 등 판매 업체나 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 일종의 푸드뱅크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며, 소년소녀가장 10세대에 주민자치센터 2층에서 조리사가 직접 만든 밑반찬을 매일 가정에 배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 "정보센터 구축은 포천동 홈페이지 www.podong.co.kr를 이용한 사이버공간상 주민구직, 자원봉사자 명부제 운영, 소외물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 동장은 주민자치역량을 위해 많은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인식이 하루속히 바뀌길 바란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진정한 주민자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관에서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꽃샘은 자연과 인간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대자연의 선물에 정성을 듬뿍 담은 꽃샘종합 선물세트로 당신의 미음을 전하십시오



(주)꽃샘종합식품  
KKH SHAEM GENERAL FOOD CO., LTD.

꽃샘벌꿀은 맑은 새벽이슬의 꽃향기를 정성껏 담은 자연그대로의 고농도 순수한 벌꿀입니다.

(주)꽃샘종합식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240

TEL.031)541-9921(代) FAX.031)541-9933

소비자상담실 : 031)541-9922

대표이사 : 이상갑